

## 총장-뉴스레터 - 73(2024-2-2) 출 15 장 22 절-27 절 (쓴 물과 단 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5:2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애굽군대를 궤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미련을 두었던 바로의 의지를 완전히 제압하셨다. 한편 앞으로 전개될 광야생활에 필요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셨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목도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 가득찬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고백하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자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손에 소고를 든 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병거부대보다 강하신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그 당시 병거에 맞설 아무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 수르 광야로 들어 서다

긴장과 두려움과 환희로 이어진 홍해도하를 거쳐서 맞이한 곳은 광야였다. 홍해 도하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잔재를 완전히 떨치게 되었다. 이제는 애굽의 군사적 추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역시 다시 되돌아 갈 미련도 갖지 못하게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영광스런 모습을 기대하며 행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현장은 광야였다. 수르광야는 ‘에담 광야’라 불리기도 한 지역으로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으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야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 마라의 쓴 물

홍해를 지나온 후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삼일을 걸었다. 모세가 찬양한 곳에는 ‘아윤 무사’ 곧 ‘모세의 샘’이라 불리우는 물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곳에서 ‘마라’까지는 약 53km 였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사흘이나 소요된 것은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약 200 만의 무리가 가축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제도구를 가지고 가야하는 노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지역에서 3 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이고 가지고 있던 물을 모두 고갈되었을 것이다. 지쳐 쓰러질 상태인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는 우물이었다. 홍해 바다의 기적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던 찬양의 감격이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 힘든 고통을 만나면 누구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기도 한다. 모세도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울부짖는 백성에 대한 원망과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믿음으로 부르짖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해결책을 허락하셨다. 한 나무를 마라의 우물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 왕하 2 : 1 9-22). 그리고 이같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계시하셨다.

### **생각하기**

이제부터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방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향인 가나안을 정복하여 영원한 선민 국가를 수립한다는 위대하고도 복된 출애굽의 근본 목적 자체를 아예 무시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셨다. 이 패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내용이면서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성도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인류 전체의 기본 패턴이기도 하다.